

□ 한국도 NEET족이 늘고 있다

1. 심각한 청년 실업과 NEET족의 부상

1) 심각한 청년 실업

○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자의 45.9% 수준이며 ‘이태백’, ‘청백전’이란 유행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2월말 기준으로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42만 5천 명에 이르러 전체 실업자 92만 5천 명의 45.9%나 되며, 실업률 또한 8.6%로 전체 실업률 4.0%의 2배 이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과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란 유행어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표현으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임

< 연령계층별 실업률 >

(단위: 천 명, %)

구 분	2004. 2	2005. 1	2005. 2			
			전년동월 대비증감	전년동월 대비증감	전월대비 증감	
전 체	900 (3.9)	904 (3.9)	50 (0.2p)	925 (4.0)	25 (0.1p)	21 (0.1p)
15 ~ 29세	460 (9.1)	431 (8.7)	-19 (-0.1p)	425 (8.6)	-35 (-0.5p)	-6 (-0.1p)
· 15~19세	47 (14.4)	67 (18.1)	7 (2.8p)	36 (12.2)	-11 (-2.2p)	-31 (-5.9p)
· 20~29세	413 (8.7)	364 (7.9)	-26 (-0.4p)	389 (8.4)	-24 (-0.3p)	25 (0.5p)
30 ~ 39세	186 (2.9)	212 (3.4)	31 (0.5p)	218 (3.5)	32 (0.6p)	6 (0.1p)
40 ~ 49세	152 (2.4)	160 (2.5)	29 (0.4p)	170 (2.7)	18 (0.3p)	10 (0.2p)
50 ~ 59세	76 (2.3)	78 (2.3)	12 (0.2p)	89 (2.6)	13 (0.3p)	11 (0.3p)
60세 이상	26 (1.3)	24 (1.2)	-3 (-0.1p)	24 (1.1)	-3 (-0.2p)	0 (-0.1p)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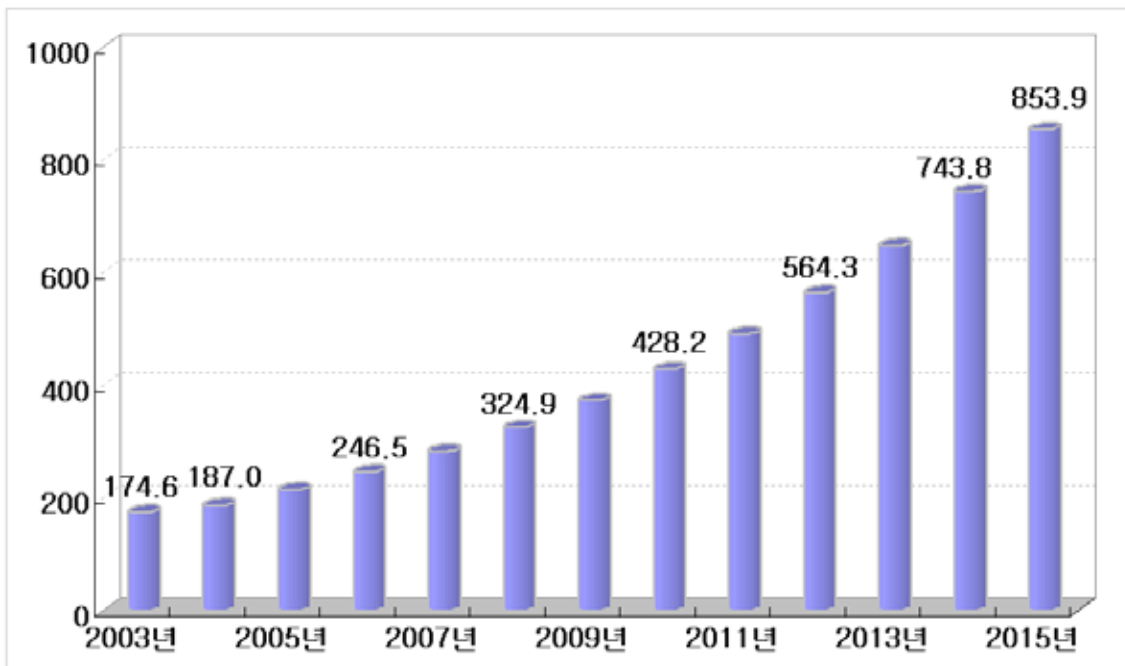
주: () 안은 실업률을 나타냄

2) NEET족의 부상

- 한편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15~34세의 미혼 상태인 NEET족이 새로운 경제·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니트족의 개념) 평소 학교에도 다니질 않고, 고용되어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은 청년 무직자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이 급증하고 있음

< 한국의 NEET족 추이 전망 >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 (NEET족 추정 방법) 우리나라의 현행 통계로는 NEET족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쉬었음'으로 조사된 15~34세 인구수를 바탕으로, 「인구총조사」에서 '일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은 자'로 조사된 15~34세 청년층 미혼 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 NEET족 수 (2003~2004년 월별) = '쉬었음' (2003~2004년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 월별 데이터) 인구수 × 경제활동인구비율 (61.9%, 2002년) × 청년층 미혼 비

율 (37.0%, 2000년)

- NEET족 평균 증가 수는 2003~2004년 월별 NEET족 추정 결과를 원 데이터로, 기하평균을 취하여 그 값만큼 선형적인 추세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 (NEET족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NEET족 수는 2003년 17만 4,6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8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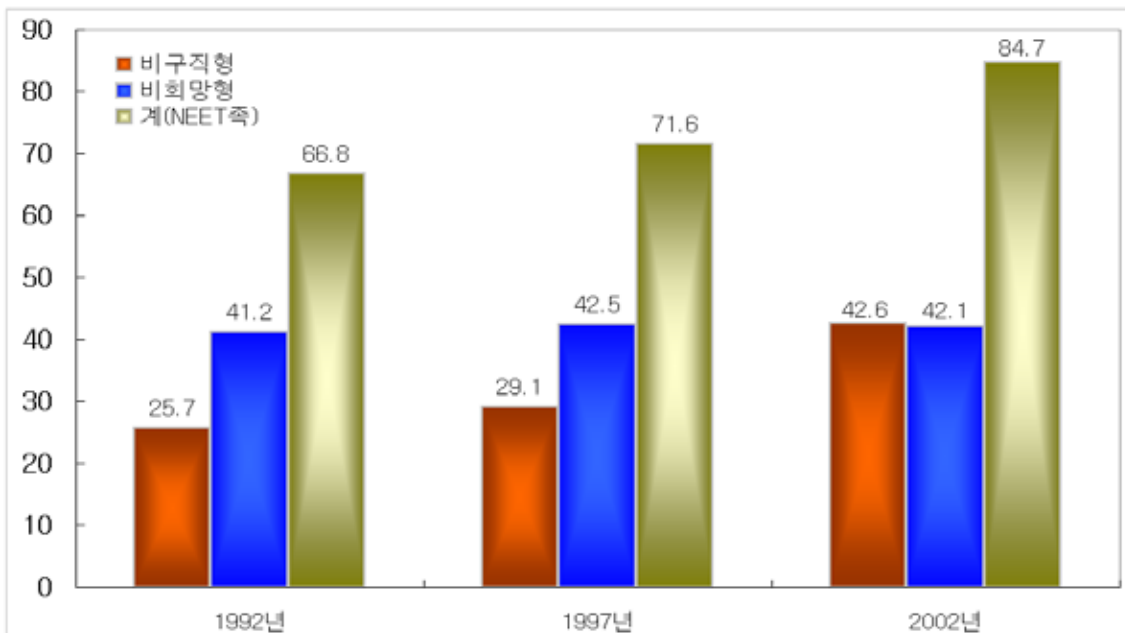
- NEET족 수가 2003~2004년 월평균 증가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15년에는 2003년 대비 약1.92배 증가(67만 9,300명 증가) 한 85만 3,900명 규모에 이를 것임
- 이는 2015년 전체 추계 인구의 1.71%, 추정 경제 활동 참가자의 2.8%에 이르는 수준임

2. 외국의 NEET족 현황과 특징

- 최근 일본에서는 통상 무직자라고 불리는 NEET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NEET족 추이 >

(단위: 10만 명)



자료: 內閣府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会, 「若年無業者に関する調査(中間報告)」, 2005.

- (일본의 NEET족) 일본형 NEET족은 15~34세의 개인으로 취업 희망은 표명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구직형'과 취업 희망조차 없는 '비희망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통상 무업자라고 불리고 있음
 - 일본형 NEET족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독신이며, 평소 수입을 동반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15~34세의 개인을 말함
 - 2002년 비구직형은 1992년 25만 7천 명에서 65.8%(16만 9천 명) 증가한 42만 6천 명, 비희망형은 1992년 41만 2천 명에서 2.2%(9천 명) 증가한 42만 1천 명으로, NEET족 총수는 26.8% (17만 9천 명) 증가한 84만 7천 명으로 나타났음

- (일본형 NEET족의 문제점) 일본형 NEET족은 '사회적 배제형', '고립화', '주춤형', '자신감 상실형', '대기형'의 5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¹⁾
 - '사회적 배제형'은 빈곤한 도시 가게 출신으로 조기에 학교로부터 이탈하여 응축된 동료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계층임
 - '고립화'는 학창 시절 또는 그 이후 친구와의 인간관계 등에서 실패하여 고립화되고, 이러한 고립화로 인해 더 한층 대인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낳는 경우를 말함
 - '주춤형' (주로 대졸자)은 취업 활동 도중에 자신의 Carrier에 대한 방향 설정이 불가능하여 주저하거나, 희망과 현실의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임
 - '자신감 상실형'은 일단 취직했지만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직장을 떠나는 경우임
 - '대기형'은 구인수가 적은 지방의 고졸자로 도시부에서의 취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임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NEET족은 심각한 정책 과제로 등장했음

- (영국)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²⁾에 의하면 영국의 16~18세 인구의 9% (16만 1,000명)이 NEET족에 속함
 - 이들은 18세 이후에도 직업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뿐더러 실업자, 사회복지급 부수급자, 약물남용자, 형사 범죄자, Homeless가 될 가능성이 있음

1) 獨立行政法人 日本勞動政策研究·研修機構, 「日本勞動研究雜誌」, No.533, 2004年 12月.

2)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July 1999.

< 국가별 NEET족의 특징 >

구 분	개 념	규 모	특 징	영 향
한 국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15~34세 청년층	2004년 187,000명 2015년 853,900명	일본의 NEET족 특징과 유사함	1. NEET족 자신의 소득감소 2.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 가중 3. 각종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상승 4. 잠재실업률 상승 5.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일 본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15~34세 청년층	2002년 847,000명 2015년 1,093,000명	사회적 배제형 고립화 주춤형 자신감 상실형 대기형	
영 국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16~18세 청년층	1999년 161,000명	18세 이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업자, 사회복지급부수급자, 약물남용자 등 사회적 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미 국	은수저증후군(Silver Spoon Syndrome), 30세 이후에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음	-	영국의 NEET족 특징과 유사	
스웨덴	Outsider, 16~24세, 영국의 NEET족과 유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함	-	
캐나다	미국의 NEET족 특징과 유사	고등교육기관 탈락학생 비율 34% (2000년)	-	

- (미국) 미국의 NEET족은 은수저증후군 (Silver Spoon Syndrome, 부유한 집안에서 은식기를 사용하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으로 불리며, 영국의 NEET족과 비슷한 성향을 보임
 -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시시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30세 이후에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음
 - 또 이들은 중독 현상(상술, 마약, 섹스, 도박 등에의 중독), 재정적인 무책임, 나태한 생활,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 인간관계의 실패 등을 통해 목적과 동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Outsider라 불리는 16~24세 NEET족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 경력이 없는 자는 취직하기 곤란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또한 NEET족의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중등 교육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을 34%에서 10%로 감소시킨다면 260억 달러 (2000년 기준) 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³⁾

3. NEET족 증가 원인과 경제적 영향

1) NEET족 증가 원인

- NEET족 증가는 노동시장의 변화, 학교 교육의 부적절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정 및 사회의 분위기 또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노동시장) 고부가가치형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후퇴, 고용관행 변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NEET족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기 후퇴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의 대졸 신입 사원 일괄 채용 후퇴와 중도 채용 증가, 연령 제한에 따른 취업 제도전 불가능 등 기업의 고용 관행 변화가 NEET족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일단 취업하더라도 자신의 커리어 지향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원수의 절대

3) OECD, *Overcoming Failure at School*, 1998.

부족에 따른 신입 또는 젊은 사원들의 부담 가중에 의한 적응 불가능에 의한 이직 등 노동 시장 및 노동 현장의 구조 변화가 NEET족 증가의 원인임

-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커리어 교육 부족에 의해 학생들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 또한 NEET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커리어 교육 부족에 의해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불가능하게 함
- 설령 커리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래 취업 희망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 형성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NEET족 후보군으로 전락해버림

- (기타) 3D업종 기피 등 청년 층의 근로 의식 약화와 고학력 가정의 과도한 기대 등의 가정 분위기 또한 NEET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NEET족의 증가 원인에는 3D 업종 기피 등 청년층의 근로 의식 약화에도 문제가 있음
- 한편 고학력 가정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그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실현의 기회를 뺏을 뿐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기생독신자⁴⁾ 또는 NEET족이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함

2) NEET족의 경제적 영향

○ NEET족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생산함수는 코브-더글라스형으로 가정하고, 김원규(2004년)의 추정결과 (1991년~2002년) 를 이용하였음⁵⁾

- (경제적 영향 측정 방법) 김원기 (2004년) 에 따라 노동계수는 0.6364, 자본계수 0.2636,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는 1.6으로 고정하였음

4) 부모와 동거하면서 주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거의 공짜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소득은 사치품,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젊은이

5) 김원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추이와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4년 10월.

○ NEET족은 자신의 생애 소득 감소 뿐 아니라 노동 투입 감소와 그에 따른 자본스톡 투입량의 성장 감소 등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경제의 활력 저하) NEET족의 증가는 이른바 빈곤형 기생독신자 (Parasite Single)를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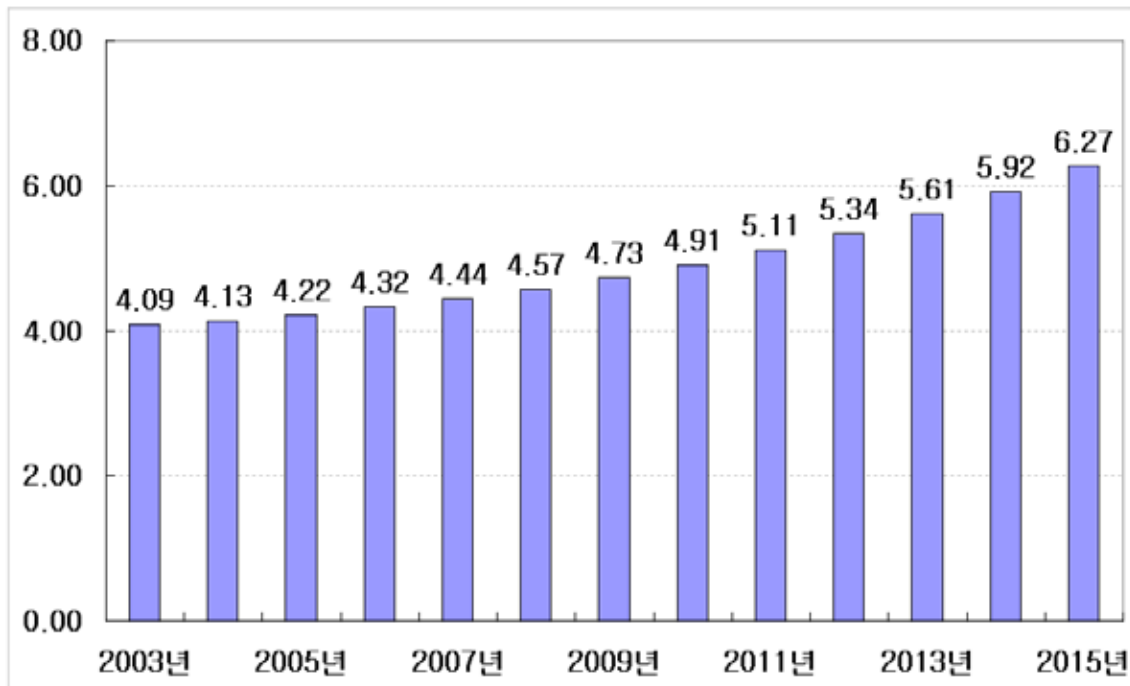
· NEET족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기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기생독신자와는 달리 빈곤한 편임

·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소비, 생산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공헌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증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림

- (투입요소 축소) NEET족의 증가는 노동 투입 증가율 감소와 그에 따른 자본스톡 투입량 (자본장비율×취업자수×자본가동률)의 증가율을 감소시킴

· 현재 NEET족은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킬 경우 잠재실업률이 상승되며, 노동 투입 증가율을 감소시킴

< 한국의 추정 실업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추정 경제성장률 한·일 비교 >

구 분	한국 (2003~2015년)		일본 (잠재성장률)	
	NEET족 포함	NEET족 제외	NEET족 포함	NEET족 제외
2000~2015년	4.96% (0.11%p)	5.07%	0.95% (-0.77%p)	1.72%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김원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추이와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4년 10월. 第一生命經濟研究所, NEET人口の将来予測とマクロ經濟への影響, 뉴스 No. 39, 2004년 10월, 21日.

주: () 안은 NEET족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나타냄.

< 한국의 추정 노동 투입 증가율 >

구 분	NEET족 포함	NEET족 제외	NEET족의 노동 투입에 대한 영향
2003~2015년	0.13%	0.31%	-0.18%p

주: 추정을 위한 데이터 및 가정은 위의 표 <추정 경제성장률 한·일 비교>과 동일.

- NEET족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면 실업률은 2003년 4.09%에서 2015년 6.27% (2.18%p 상승) 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음⁶⁾
- 한국의 경우, 노동 투입 증가율이 2003~2015년 0.31%에서 NEET족을 고려하면 0.13%로 0.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TFP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 투입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자본스톡 투입량의 증가가 유일한 방법이나, 자본장비율과 자본가동률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취업자수 감소는 결국 자본스톡 투입량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므로 경제성장률은 취업자 수 감소율만큼 감소함
- (경제성장률 저하) NEET족의 증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한국은 2003~20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5.07%에서 NEET족의 영향으로 4.96% (0.11%p 감소) 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 GDP (778조 4,000억 원) 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8,562억 원의 GDP 손실을 가져올 것임
 - 일본은 NEET족 증가에 의해 2000~2015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0.77%p 정도 경

6) 추정 실업자 수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원 데이터로 2003년 이후 실업률이 1971~2002년 평균 실업률 (3.5%) 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경제활동인구에 NEET족을 포함했을 경우의 실업률임.

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4. 대응 방안

○ NEET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가 중요함

- 영국의 교육과정평가원(QC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은 2004년 9월 학기부터 14세 이상인 중등학교 고학년생(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QCA는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을 전체 고등학생의 10%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직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직업 연계 훈련은 각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며 자체 교육프로그램, 해당 지역의 대학·직업훈련센터·기업체 등과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 1995년 이후 영국은 중등학교 고학년인 14~16세 학생에 대한 직업 훈련을 꾸준히 강화시켜 왔으나, 이 직업 훈련의 목적은 학생에게 '밥벌이를 위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공부)과 직업의 연관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일본 정부는 '청년 자립·도전전략회의'를 설치하고, NEET족이나 프리터(Freeter = Free + Arbeiter)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자립·도전전략회의'는 NEET족이나 프리터의 노동 의욕 고취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정부 전체 810억 엔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장래의 NEET족 후보군을 최소화시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함

- NEET족 후보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교육 제도의 개선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재학생에게 까지 확장시켜야 할 것임
- 비정규직 고용자를 포함한 청년이 직업훈련 또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7) 프리터는 정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15~34세 청년층을 지칭함.

‘학자금 신용 기금’을 조기에 도입하고, 대출 규모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편 NEET족 증가의 억제 및 감소를 위해서는 ‘참여·자립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가정) 자녀의 NEET족화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 및 가족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자녀의 독립심 배양이 중요함
 - 자녀의 자립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父와母의 근로 형태의 변화,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가정 내 역할 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및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함
- (학교)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조기 직업 체험 등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현실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마련이 중요함
 - 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고 조기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경험을 조기에 가지게 함으로써, 전문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한편 Citizenship에 관한 교육, 사회보장제도, 고용 관계 등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이들이 현실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함
-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역 사회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
- 결국 NEET족 증가 억제 및 감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도를 높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참여·자립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뿐 아니라 가정, 지역 사회,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